

한국 대학생 한자 쓰기에 보이는 오류 연구

- 신문사설 속 한자어를 중심으로

류동춘*

目 录

1. 서언
2. 한자 쓰기 오류의 역사
3. 한자 쓰기 오류의 유형
4. 신문사설 속 한자어 쓰기에 보이는 오류의 특징
5. 결어

1. 서언

한국인은 한글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한자를 이용하여 한문식으로 한국어를 고쳐서 표현하거나 한자의 뜻과 발음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이후에도 한자는 계속 사용되어 현재까지도 한국어 속에는 한자어 어휘가 여전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언어를 우리 글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자의 학습과 이해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문헌의 대부분은 한자로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위해서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도 한자의 학습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중일 삼국은 한자를 매개로 하여 교류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상호교류에는 한자가 여전히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회복이후로 양국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교수.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어의 기록수단인 한자의 학습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자는 사실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기와 다르게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略字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형을 크게 줄인 간화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간화자도 전통적인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한자의 변화 규율에 맞춰 자형을 간략히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인 한자와 간화규칙을 알고 있으면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화자의 발음과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3국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한자의 학습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대학교 2011학년도 제2학기 ‘한자와 중국문화’수업에서 과제로 부여한 ‘신문사설 속의 한자어를 모두 찾아서 한자로 쓰기’(주1회, 총15회) 결과물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강좌의 수강생은 모두 29명인데 과제 미제출자와 외국인 6명을 제외한 23명의 과제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명은 각각 2학기생 1명, 3학기생 9명, 4학기생 7명, 5학기생 3명, 6학기생 2명, 7학기생 1명이며, 경제학(6학기생), 사학(4학기생)전공 각1명을 제외하고 21명이 중국문화전공 학생이다.

2. 한자 쓰기 오류의 역사

한자 쓰기오류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자체계의 가장 이른 시기의 字體라 할 수 있는 갑골문에서도 명백히 잘못 새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글자가 보이고 있으며, 이후의 자체들에서도 正字와 다른 異體字, 通假字 등이 많이 출현하였다. 이런 부류의 글자들은 한자 造字초기의 다양한 창작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쓰기과정의 오류에서 기인하

여 후에 하나의 문자로 인정받게 된 것들이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간 의사소통의 도구인 문자체계내에 한 글자의 글꼴이 너무 많으면 언어 기록이라는 문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므로 정리의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된다.

秦始皇이 李斯로 하여금 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문자들을 小篆으로 정리하게 한 것이 역사상 처음 보이는 가장 큰 규모의 정리작업이다. 진시황의 정리 이후에도 특히 남북조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문자 역시 또 다시 크게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唐대에 이르러 한자 자형의 혼란을 정리하려는 본격적인 字樣運動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陸德明은 『經典釋文』을 찬술하여 경전 속 한자의 다양한 글꼴과 발음을 정리하였으며, 孔穎達은 唐太宗의 명을 받아 『五經正義』를 찬술하여 경의의 해석을 통일하였으며, 顏師古는 『字樣』을 통해 당시 문자를 辨正하고 正體를 제시하였다. 이런 노력이 후대에도 지속되었지만, 사용하는 글자의 전체 수량이 많고, 모양이 비슷한 글자도 많으며 글자의 획수가 많은 한자체계 자체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한자는 정확히 쓰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자체계 초기의 갑골문에서부터 楷書까지 줄곧 한자는 形聲이나 會意의 방식을 통하여 기존의 자형에서 部件을 추가하여 累增字, 分化字 등을 만들었기에 글자의 획수도 많아지고 글자의 전체 수량도 늘어났으며 자연히 모양이 비슷한 한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형 이외에도 중국어 발음체계의 특성상 사성을 포함하여 1265개의 음절¹⁾로 5만개가 넘는 한자의 발음을 내야 하므로 소위 同音字가 많아 서로 간에 음에 따른 간섭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획수가 많은 글자를 줄이고 사용 글자수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화자로 정리하여 이전의 많은 글자들이 하나의 글꼴로 다시 정리되었지만, 한 글자가 이전의 여러 글자를 대체하다보니 혼란스러운 부분도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자

1) 류동춘(2009:50)에 의하면 중국어는 이론적으로 2108개 음절이 나올 수 있지만, 盧偃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용하는 음점은 1265개 이다.

를 쓸 때 자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혼동의 결과로 나온 쓰기오류는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別字와 錯字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²⁾ 이 논문에서 別字는 다른 글자로 잘못 쓴 경우의 글자를 가리키고, 錯字는 필획을 잘못 써서 자전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쓴 것을 가리킨다.

3. 한자 쓰기 오류의 유형

1) 別字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쓰기오류로 나타난 글자가 자전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인 경우에 우리는 이 글자를 別字라고 한다. 別字는 정식 글자인데 단지 문장이나 어휘 속에서 문맥이나 의미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別字는 원래의 글자와 비교하여 문자의 삼요소인 形, 音, 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오류의 유형을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다.³⁾

(1) 形의 측면

역대 자전류에 수록된 글자를 보면, 동한시기 『說文解字』의 9353자 이후 계속 증가한 한자의 수량은 청대의 『康熙字典』에 이르러서는 이미 5만자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량 때문에 모양이 유사한 한자가 많고 이에 따라 오류도 자주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別字들을 글자의 구성 층차⁴⁾에

- 2) 이 글은 문장 속에서 잘못 사용된 한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학 자형연구에서 別字와 錯字를 이체자의 범주로 취급하기도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쓰기오류로 본다.
- 3) 문자의 삼요소인 形, 音, 義에 따라 분류하다보면 하위분류에서 다시 나머지 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어렵다.
- 4) 전통적으로 상형과 지사처럼 더 이상 글자로 분리되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글자를 독체자(文)라 하고, 형성과 회의처럼 둘 이상 글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합체자(字)라 한다.

따라 살펴보면, 獨體字는 모양이 유사한 글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合體字는 같은 부건이 포함되어있는 글자로 잘못 쓴 예가 많이 보인다. 아래는 자형을 기준으로 자형의 일부가 같은 글자, 자형이 유사한 글자, 배열이 다른 글자, 모양을 간략히 한 글자 등으로 세분한 것이다.

(가) 자형의 일부가 같은 글자

원래 글자나 別字가 상대자의 일부와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다시 발음이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발음이 같은 글자

㉠ 전체와 부분 관계

供→共 供給⁵⁾
 果→課 效果
 較→交 比較
 批→比 批准
 小→少 最小限
 少→小(2)⁶⁾ 少數
 授→受 教授
 案→安 案
 源→原 調達源
 子→字 利子
 轉→專 試運轉

5) 본고에서 제시한 '供→共 供給'은 첫째 글자'供'는 원래 맞는 한자이고 화살표'→'뒤의 둘째 글자'共'은 잘못 사용된 별자나 착자이며 마지막 '供給'은 사설에서 해당하는 어구를 가리킨다.

6) 괄호() 속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가리킨다.

政→正 政府
 潮→朝 潮
 注→主 注力
 主→注 主意
 住→主(2) 住民
 黜→出 黜校
 撐→掌 支撐
 貨→化 위안貨

이 예들에서 보면, 부분으로 구성된 글자가 대부분 전체 글자의 聲符 역할을 한다. 원래 한 자형(부분)을 사용하다 후에 부건을 첨가하여 글자를 분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부류의 글자들은 원래 글자와 별자 간에 의미상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⁷⁾ 그리고 별자들은 대부분 원래 글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글자들이다. 별자가 흔하게 쓰이지 않는 글자인 경우는 대개가 한글프로그램 한자단어입력창⁸⁾에서 앞부분에 출현하는 글자나 단어들이다.⁹⁾

㉔ 일부 部件이 같은 경우

攻→功 攻擊
 當→瞠 當然
 舶→泊 船舶
 辨→辯 辨理士

7) 授→受의 경우 현재는 ‘주다’와 ‘받다’는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므로 ‘상반된’의미를 갖지만, 이 또한 연관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8) 한글 프로그램에서 한자를 입력할 때, 단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하는 한자어가 뜨는데 이를 가리킨다. 아래에서는 ‘한자단어입력창’으로 부른다.

9) 主와 注를 보면 모두 별자로 쓰였는데, 注意로 쓰인 별자는 主意 보다 注意가 한글사전에서 앞에 나오기 때문인 것 같다.

說→設 說
 昨→作 昨年
 情→精 國情院
 靜→情 冷靜
 精→情 精神
 助→組 助
 株→珠 大株主
 陳→陣 陳述
 刑→形 刑事課
 型→形(5) 大型

이 글자들은 원래 글자와 별자가 모두 합체자로 각 부건의 일부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이 경우도 대부분 이전에 하나의 자형에서 분화된 글자들이다. 따라서 발음이 같고, 때로는 의미도 유사한 것이 많다.¹⁰⁾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별자가 흔히 쓰이는 글자가 대부분이거나, 한자단어입력창에서 앞에 출현하는 단어들이다.¹¹⁾ 辨→辯의 경우 자주 보이는 辯護士의 영향을 받아 辯理士로 잘못 쓴 것 같다.

② 발음이 다른 글자

㉠ 전체와 부분 관계

舉→與 選舉 거 여¹²⁾
 計→言 計劃 계 언

10) 陳-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건이 성부로 쓰였다.

11) 惝然, 船泊, 冷情, 大形 등의 단어가 當然, 船舶, 冷靜, 大型 보다 앞에 나온다.

12) 원래 글자와 별자의 발음이 다른 경우, 사설에서 출현하는 어구 뒤에 원래글자, 별자 순으로 발음을 표기하였다.

動→重 動機 동 중
 外→夕 外 외 석
 意→音 合意 의 음
 材→木 取材 재 목
 點→黑 時點 점 흑
 條→攸 條例 조 유
 側→則 側 측 측
 護→護 保護 호 획
 還→還 還元 환 경
 歡→萑 歡呼聲 환 관
 劃→畫 計劃 획 화

이 글자들은 발음이 다른 글자로 분류하였지만, 計→言, 材→木, 點→黑 등에서 일부가 전체 글자에서 義符로 쓰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앞절의 1)의 ㉠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원래는 발음이 같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음이 변화하여 지금은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1)의 ㉠에 비하여 오류의 정도가 심한 별자들로 판단할 수 있다.

㉡ 일부 部件이 같은 경우

間→問 時間 간 문
 開→間 開發 개 간
 公→分 公社 공 분
 級→紀 上級者 급 기
 末→未 未 말 미
 名→各 不名譽 명 각
 罰→罪 體罰 벌 죄

法→法 法的 법 현
 任→任 任期 임 왕
 準→準(2) 水準 준 집
 處→虛 處 처 허
 出→山 排出 출 산
 特→物 特殊 특 물
 敗→財 失敗 패 재
 現→珮 現 현 패
 協→協 協力 현 려
 貨→貸 外貨 화 대
 訓→順 教訓 훈 순

이 예들은 모양상으로 볼 때, 원래 글자와 별자의 일부 부건이 같은 것들이다. 같은 부건이 어떤 경우에는 訓→順처럼 聲符로 같이 쓰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罰→罪처럼 義符로 같이 쓰인 것이며, 어떤 경우는 出→山처럼 아예 아무 관계가 없이 모양만 유사한 것이다.

(나) 자형이 유사한 글자

같은 부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글자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이다.

巨→臣 巨額 거 신
 境→拉 境遇 경 략
 今→合 只今 금 합
 力→刀 潛在力 력 도
 賴→負 信賴 퇴 부
 矛→予 矛 모 여
 自→目 自負心 자 목

이 예들은 원래 글자와 별자와의 관계가 부건이 일치하는 것은 없지만 모양이 유사한 것들이다.

(다) 部件의 배열이 다른 글자

部→陪 行安部 부 배

이 예는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부건은 같지만, 부건의 배치를 다르게 한 글자이다. 즉 行政安全部의 축약어인 行安部를 쓸 때, 部의 부건을 좌우로 바꾸어 陪로 잘못 쓴 것이다. 한자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건의 배열이 자유롭다가 후에 점차 부건의 배열이 고정되어 갔다. 물론 峰-峯, 够-夠처럼 부건의 배열이 자유로운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글자는 부건의 배열이 다르면 발음과 뜻이 전혀 다른 글자가 된다.

(라) 簡化字

간화자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표준 글자체로 정자체의 자형을 정해진 규율에 따라 간략히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간화자는 정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의 자형의 일부가 같고 발음이 같은 글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표준 글자체임을 감안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도 대부분 중국문화 전공자이고 일부 전공이 다른 학생도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한자를 표기할 때 간화자의 영향을 받아 정자체와 간화자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價→价 價格

系→係(2) 外國系

國→国 韓國

氣→气 電氣

農→农 農業

團→团 債權團
 復→复 復活
 線→线 境界線
 實→实 現實
 億→亿(2) 億
 劑→剂 殺菌劑
 韓→韩 韓國

이 예들 가운데 億과 韓國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어 가운데 한 글자만 간화자로 잘 못 썼다. 이로 볼 때, 본래 한자를 정자체로 써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자체로 쓰려고 했지만, 결국 간화자의 간섭을 받아 정자와 구분하지 못하고 간화자로 잘못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음의 측면

한자체계는 한자의 수량이 많음에 비하여 발음에 사용되는 음절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으로 인하여,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한자의 분화과정을 보면, 같거나 유사한 발음을 가진 글자들이 의미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런 한자체계의 특성에 따라, 같은 음을 가진 한자로 바꾸어 사용하는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런 오류들은 形과 義와의 관계에 따라, 발음만 같은 글자, 발음이 같고 자형도 유사한 글자, 발음이 같고 의미가 관련 있는 글자로 나눌 수 있다.

(가) 발음이 같은 글자

却→覺 冷却
 個→開 6開國
 個→介(3) 個月

據→居 占據
決→結 決定
境→經 境界線
競→境 競選
經→京 經營
景→磬 風景
系→契 系
計→界 生計
計→系(2) 加計
系→界(2) 專門系高
共→公 五共
過→課(2) 過程
寬→款 寬待
管→觀 主管
校→教(2) 學校
國→局 全國的
軍→群 軍團
圈→權(5) 政治圈
奈→那 奈落
內→來 年內
臺→大 50%臺
帶→代 時間帶
大→臺 十大江
臺→代(3) 50%臺
大→代(3) 七大
同→動 共同
來→內 來韓

流→類 物流
 流→有 流動
 理→離 亂理
 滿→晚 滿期
 名→命 名
 辯→卞 抗辯
 釜→部 京釜
 婦→府 婦
 副→部 副大臣
 部→府(4) 建設交通部 外交部 知識經濟部
 事→史 過去事
 社→事 社會
 師→士 設計事
 辭→事(2) 辭典
 事→士(3) 軍事
 山→產 鑛山
 上→常 民事上
 上→狀 事實上
 上→像 上
 常→上 常任
 性→聲 警告性
 省→城 歸省客
 細→洗 細心
 囚→收 良心囚
 需→受 需給事情
 輸→搜 輸出
 遂→修 遂行

收→手 回收
試→示 試運轉
餘→如 5億餘원
與→餘 與件
熱→烈 熱風
豫→睿 豫算
院→員(3) 院內
委→位 金融委
意→議 合議
臨→任 臨하다
資→自 資產
電→展 原子力發電
前→典 前例
戰→電 戰線
戰→典 特戰師
節→折 節電
正→定 公正去來
定→程 測定
程→定(3) 程度
制→第 公募制
帝→制 日帝
劑→製 劑
際→制 學際的
條→照 條例
調→照 調查
造→操 造船
注→呪 注文

紙→地	紙
遲→持	遲延
次→借	신흠여행 次
秒→初	초읽기
銃→總	銃대(를 메다)
值→治	限界值
板→判	板
片→編	3片
便→偏	便을 갈라
扁→便	扁平
廢→幣	廢校
被→避	被引用
避→被	避하다
後→候	中後半

여기에 쓰인 별자들은 대부분이 원래 글자 보다 흔히 쓰이는 글자이거나 한자단어입력창의 앞에 나오는 글자들이다. 그 밖의 오류들은 圈→權(5)의 경우 원래 政治圈으로 써야하는데 한자단어입력창에는 政治權만 나타나서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際→制의 경우도 원래 學際的으로 써야하는데 한자단어입력창에는 學制, 學製만 나오므로 앞에 출현하는 學制를 선택하고 的을 붙인 것이다. 流→有과 來→內的 경우 각각 流動과 來韓으로 써야하는데 한국어 두 음법칙의 영향으로 각각 ‘유’와 ‘내’의 발음으로 흔하게 쓰는 글자를 사용한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奈→那의 경우는 奈落으로 써야하지만, 那落이 단어장 출현하고 奈가 본래 ‘내’와 ‘나’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로 많이 알려져 ‘那’를 쓴 것 이로 볼 수 있다. 部→府(4)의 경우는 建設交通部, 外交部, 知識經濟部 등의 부처명을 政府라는 단어의 영향을 받아 별자로 쓴 것으로 보인다. 校→教(2)의 경우 하나는 원래 學校로 써야하는데, ‘배울’ 學과 ‘가르

칠' 敎의 상대적 의미의 영향을 받아 별자로 기록한 것 같고, 학교의 직원을 나타내는 校職員은 교원과 직원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여 敎職員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별자들은 모두 한 음절을 잘못 표기한 예이다. 물론 이 별자들도 단음절어 뿐만 아니라, 이음절어나 삼음절어 등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음절어'를 따로 내어 언급하는 것은 이 예들은 이음절어에서 한 음절만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잘못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음절 모두 다른 한자를 쓴 예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오류도 발음이 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발음이 같은 이음절어

看過→諫果
 甘水→勸收
 巨視→舉示
 建造→乾燥
 經緯→涇渭
 計座→癸坐
 公社→工事
 機構→器具
 機器→器機
 技術→記述
 當場→堂長
 免避→面皮
 番番→翻翻

報酬→保守
 報酬→補修
 浮揚→扶養
 否定→不正
 史觀→士官
 成火→聲華
 示威→侍衛
 連鎖→憐殺
 豫防→禮房
 前途→傳導
 傳貫→田稅
 銓衡→典型
 政治→情致
 支援→志願
 陳述→眞術
 鎮火→進化
 鐵槌→撤退
 趨勢→抽稅
 推進→追陣
 呼訴→號召
 混在→婚材

원래 단음절어 위주였던 한자어가 후대로 오면서 이음절어화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단어가 이음절어이다. 그리고 개별 한자와 마찬가지로 이음절어에서도 발음이 같은 단어가 많은 관계로 다른 단어로 잘못 쓰기 쉽다. 機器→器機 같은 예는 정확한 어휘 지식이 없으면 흔하게 범하는 오류이다. 이 단어를 포함하여 여기에 제시된 별자들은 모두 한자단어입력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

거나 본래 글자보다 먼저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番番→翻翻의 경우도 翻翻만 한자단어입력장에 출현하기 때문에, ‘매 때마다’의 뜻으로 쓴 것을 ‘깃발 등이 바람에 펄럭이다’ 뜻의 翻翻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PC와 인터넷에 사용에 익숙한 세대들은 한자어를 쓸 때,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앞서 출현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② 기타

발음이 다른 단어나 발음은 같지만 단어가 되지 않는 한자를 쓴 예도 보인다.

名望→亡命

放射→防事

名望→亡命의 경우 단어 앞뒤 발음을 거꾸로 착각한 예이다. 放射→防事의 경우는 없는 단어를 조합하여 쓴 예이다. 이런 종류의 별자는 두 예만 보이며, 모두 일시적인 주의 소홀로 인한 오류인 것 같다.

(나) 발음이 같고 자형의 일부가 같은 글자

앞절 ‘(가) 자형의 일부가 같은 글자’ 가운데 ‘(1) 발음이 같은 글자’들은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다) 발음이 같고 의미가 관련 있는 글자

발음이 같고 의미상으로도 관련이 있는 글자는 혼동하기 쉽다.

難→亂 論難

騰→登 急騰

收→受 收容

院→園(2) 院長

義→意 主義

廢→閉 廢校

여기에서 難→亂의 경우 論難은 한국어로 읽을 때 보통 ‘논(놀)란’으로 많이 읽기 때문에 의미도 유사한 ‘亂’으로 잘못 쓰는 예가 많은 것 같다. 騰→登의 경우는 세밀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르다’는 의미의 騰 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인 ‘오르다’를 나타내고 흔히 쓰이는 ‘뜰’을 별자로 쓴 것이다. 義→意, 收→受, 廢→閉의 경우도 세밀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별자를 사용한 예이다. 院→園(2)의 경우는 기구의 명칭이 院이면 우두머리를 院長이라 하고, 園이면 園長이라 해야 하는데, 한자단어입력창에 園長이 院長 보다 먼저 나와서 별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義의 측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발음을 위주로 표기하는 문자 체계와 달리 의미 위주로 표기하는 한자체계는 여타의 문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미가 유사한 글자 또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비슷한 의미의 다른 글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글과 같이 발음 표기를 위주로 하는 문자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발음이나 자형에 의한 오류 보다 순전히 의미의 유사성에 의한 오류는 아주 적게 보인다. 다음은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글자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強→力 強化

算→料 電算

學→教(2) 學生

이 글자들은 발음과 형태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별자로 잘 못 쓴 경우이다. 強→力の 경우 強化를 써야하는데 ‘굳 세다’는 의미의 強과 ‘힘쓰다’를 나타내는 力을 혼동한 것 같다. 算→料의 경우 電算으로 써야하는데 ‘세다, 셈하다’는 뜻의 算과 ‘세다, 헤아리다’를 나타내는 料를 혼한 것 같다. 學→敎의 경우 이 두 글자는 고문자에서는 같은 글자로 동일한 어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발음도 다르고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상반된’ 의미로 쓰이는 글자인데 상반의미의 영향을 받아 실수한 것 같다.

(4) 우리말과 한자어를 혼동한 경우

한글로만 표기된 신문 사설에서 한자어를 찾고, 이 한자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기록하는 과제의 성격상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말을 한자어로 착각하여 한자로 표기한 경우와 거꾸로 한자어를 우리말로 착각하여 표기하지 않은 오류도 보인다.

(가)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

굳→應(3)

모습→模襲

수→數

원→元(4)

조각→彫刻

차지→借地

굳→應(3)의 경우 장소를 나타낼 때 굳이 한자표기가 필요 없는데, 이전에 한국에서 만든 應자를 사용한 예이고, 모습→模襲의 경우는 ‘생긴 모양’을 나타내는 우리말을 ‘모방하다’는 뜻의 한자 模襲으로 표기하였고, 수→數의 경

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을 나타내는 우리말 ‘수’를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 數로 표기하였으며, 원→元(4)의 경우 한국 화폐의 단위는 우리말 ‘원’을 사용하는데 중국 돈 단위 元으로 표기하였고, 조각→彫刻의 경우는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우리말 조각을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만들다’는 의미의 한자어 彫刻로 표기하였으며, 차지→借地의 경우도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지다’는 의미의 우리말 ‘차지’를 ‘땅을 빌리다’ 혹은 ‘빌린 땅’이란 뜻의 한자 借地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

團→단 軍團

網→망 網

阿→아 南阿共

議→의 本會議

自體→자체 自體

躊躇→주저 躊躇하다

團→단의 경우 ‘사단 이상으로 편성된 군부대’인 軍團에서 단을 한글로 표기하였고, 網→망의 경우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말인 網을 한글로 표기하였고, 阿→아의 경우는 南阿共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를 阿로 쓰는 것을 모르고 南아共으로 표기한 것이다. 議→의의 경우 ‘本會議’를 ‘本會의’로 표기하였는데 本+會議 구조를 本會+소유격 조사로 잘못 파악한 것 같으며, 自體→자체의 경우는 ‘본래의 바탕’이라는 한자어 自體를 우리말로 혼동하여 한글로 썼으며, 躊躇→주저의 경우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는 한자어 躊躇를 우리말로 혼동하여 한글로 표기하였다.

(5) 기타

形, 音, 義 관련해서 오류의 원인을 찾기 힘든 별자들도 보인다.

達→擔 達하다

戲→癡 戲弄

達→擔의 경우 ‘일정한 정도, 장소에 이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達하다’로 써야하는데 ‘매다, 떠맡다’는 뜻의 擔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戲→癡의 경우 戲弄에서 ‘희롱하다’는 의미의 戲를 ‘악창, 등창’을 나타내는 癡(옹)으로 잘못표기 하였는데, 아마 뒤의 ‘弄(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보인다. 이 예들은 뚜렷한 원인이 있기보다는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2) 錯字

錯字는 별자와 달리 잘못 쓴 글자가 사전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音과 義를 갖춘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자처럼 音과 義에 따른 오류는 있을 수 없으며 모두 形이 잘못된 글자이다. 착자는 다시 오류가 발생한 부분과 획의 증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筆劃이 누락된 글자

權→權 權益 卅 누락

對→對 對備 ㄅ 누락

業→業 業 八 누락

한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보다 획수도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이나 획을 빠뜨릴 수 있다. 위의 예들은 모두 편방이나 획을 누락한 오류들이다.

(2) 部件이 바뀐 글자

蔓→(曰→白) 蔓延
 閥→(伐→代) 財閥
 罰→(言→月) 體罰
 使→(吏→史) 使用
 署→(𠂔→𠂔) 官公署
 船→(几→ム) 造船
 瞬→(目→且) 瞬間
 式→(弋→戈) 株式
 實→(卍→卍) 實績
 財→(才→寸) 財產
 停→(亭→亮) 停電
 組→(且→目) 組織
 證→(登→發) 證據
 指→(扌→扌) 指揮
 織→(戠→幾) 非組織
 初→(ネ→ネ) 當初
 蓄→(畜→昔) 貯蓄
 衝→(行→彳) 衝擊
 型→(刑→形) 大型
 揮→(扌→扌) 指揮

작자 가운데 가장 많은 예가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이 다른 부건을 사용한 것이다. 대부분 원래의 부건보다 필획이 간단하거나 자주 쓰이는 부건으로 바뀌

었다. 이 가운데 이음절어에서 두 글자 모두 잘못 쓴 예도 보이는데, 指揮에서 두 글자 모두 부건 扌를 扌으로 잘못 썼다. 원래 指揮에서 같은 부건 扌를 쓰는 것의 영향으로 착자의 편방도 類化 작용이 일어나 두 글자 모두 잘못된 부건을 쓰게 된 것 같다.

(3) 部件이 추가된 글자

長→𧄂 ~의 長

이 경우는 한 예만 보인다.

4. 신문사설 속 한자어 쓰기에 보이는 오류의 특징

위에서 잘못 쓴 글자를 자전수록여부에 따라 別字와 錯字로 나누었고, 오류의 예를 形, 音, 義 세 측면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쓰기 오류의 수량적 특징을 중심으로 필자가 2000년에 수행한 「韓國大學生在書寫漢字時常見錯誤分析」의 결과와 비교해보고, 아울러 신문사설 속 한자어 쓰기에 보이는 오류의 특징을 귀납할 것이다.

1) 중국어 작문에 보이는 한자 쓰기 오류와의 비교

(1) 별자와 착자의 비율

류동춘(2000)에 나타난 오류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체 오류 가운데 착자는 아주 적은 수량만 발견되었고, 별자 사용의 오류가 많이 보인다. 이는 중국문화 전공자나 어느 정도 한문을 학습한 학생들이어서 한자와 한자가 되지

않는 부호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류동춘(2000)과 비교해보면, 중국어 작문에서 나타나는 착자의 비율이 한국 한자어 쓰기에 나오는 비율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물론 연구대상이 균일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중국어 작문이 전체 문장을 간화자로 표기해야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별자의 形, 音, 義 관련 오류의 비율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한자어 쓰기이기 때문에 한글을 근거로 한자를 쓰는 과정에서 같은 발음의 별자로 잘못 쓴 예가 가장 많이 보였다. 이는 류동춘(2000)의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쓰기 착오 분석에서 나온 오류 유형과는 다른 양상이다. 류동춘(2000)에는 부건을 교체한 오류를 비롯한 부건을 잘못 쓴 字形에 관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音에 의한 오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義에 의한 오류 순이었다. 반면 이번 고찰에서는 音에 의한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은 形에 관한 오류이며, 의미와 관련된 오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음절어에서도 역시 음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보였다. 그리고 한자어와 우리말의 구별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오류 역시 음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착자의 形, 音, 義 관련 오류의 비율

류동춘(2000)과 마찬가지로 별자에 비하여 착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오류의 성격상 모두 자형과 관련된 것들이다. 가장 많은 오류의 유형인 부건 교체의 경우 비교적 자주 쓰이는 부건으로 대체하여 쓴 예가 많이 보였다. 류동춘(2000)에서는 필획의 오류와 부건의 교체가 거의 비슷한 수량으로 출현하여, 중국어 쓰기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착자가 출현함을 알 수 있다. 이 원인도 아마 문장 전체를 한자로 써야하고 익숙하지 않은 간화자로 써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2) 신문사설 속 한자어 쓰기에 보이는 오류의 특징

위에서 신문사설 속 한자어 쓰기에 보이는 오류의 수량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실제 오류에 초점을 맞춰 별자나 착자에 나타나는 특징을 귀납하였다.

(1)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에서 착자 보다 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별자는 대부분은 한자단어입력창에 먼저 출현하거나, 유일하게 출현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생긴 것 같다. 비록 손으로 직접 써야하는 과제였지만, 모르는 한자의 검색은 종이로 된 사전 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축약어의 경우에는 쉬운 글자조차도 틀리게 쓴 경우가 더 많이 보였다. 예를 들면 金融委員會를 줄인 金融委를 金融位로 쓴 것 등인데, 축약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많고, 축약어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한층 어려웠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2)

본고에서 따로 살펴본 이음절 한자어에도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이 경우도 거의 모두가 발음이 같은 별자로 구성된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학생들이 의미의 차이를 세밀히 구분하지 못하고 한자단어입력창에 먼저 나오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한국어로만 표기하던 습관 때문에 단어의 발음만 주의하고 단어의 의미와 글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3)

많은 오류들은 사실 맥락이 있는 문장 속에서 의미와 함께 파악했다더라면

착오를 줄일 수 있지만, 개별 단어만 떼어내 읽고 찾음으로 해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監督院과 情報院의 경우 문장에서 분리하여 단어만 찾아보면 監督員과 情報員이 사전에 먼저 출현하고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이 것을 선택하게 된 오류가 생긴 것 같다. 이와 반대로 ‘本會議’를 ‘本會의’로 읽은 오류는 문장 속에서 한자어를 단어와 조사의 결합으로 잘못 파악하여 끊어 읽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事實上의 上을 狀으로 잘 못 쓴 경우는 實狀이 사전이나 한자어입력창에 먼저 출현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4)

연구대상자들이 중국문화전공자이나 중국어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이라서 간화자를 정자로 혼동하여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였는데, 이 경우는 자형과 자음이 모두 관련된 오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錯字는 저학년 학생 보다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중국어나 한문을 학습하면서 손으로 쓰는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5. 결 어

위에서 한자 쓰기에서 보이는 오류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의 중국어 작문에 나타나는 한자 쓰기 오류에서는 자형과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비해 이번 한국어 사설의 한자어 쓰기에는 동음어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다. 이는 결국 중국어의 표기수단으로 한자를 이해할 때는 자형오류가 많이 생기고, 한국어 한자음 표기에서는 동음어에 의한 혼동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자가 비록 표의성이 강하지만 문자인 이상 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발음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접근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학생들의 오류를 別字와 錯字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특징을 귀납, 정리하였는데, 향후 중국학생과 한국학생들의 착별자 사용의 비교연구와 오류 출현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학생들 가운데 중국어 학습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한자 쓰기 오류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參考文獻

- 팽철호, 『당신이 잘못 쓰는 우리 한자어』, 서울: 신아사, 2013
- 백로,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신생 한자어 연구』, 서울: 태학사, 2015
- 크리스타 뒤르사이트 저, 김종수 역, 『문자언어학』, 서울: 유로, 2002
- 莊洪江·趙小龍, 『易混同音字辨析手冊』, 北京: 語文出版社, 1993
- 崔永華, 『詞匯文字研究與對外漢語教學』,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柳東春, 「韓國大學生在書寫漢字時常見錯誤分析」, 『國際中國學研究』第3輯, 韓國中國學會, 2000
- 文允廷, 「中國語 錯別字 誤謬分析 및 指導方案」, 明知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2005
- 柳東春, 「從語言和文字觀察到的韓國與中國的異同點」, 『當代韓國』第60期,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Abstract

An error study that can be seen in writing Chinese Characters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Sino-Korean Words in Editorials of Newspapers –

Ryu, Dong-cho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rror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indicated by the result of the task “University students search all Sino-Korean words in the editorials of the newspaper and write it with Chinese charac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rror is indicated and the proportion of the biezi(別字)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cuozi(錯字), and most biezi(別字) wrongly writes the same pronunciation characters. In addition to this, it is possible to discover a few errors caus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simplifier. Compared to my 2000 year research, I also use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so it can be seen that many letters related to sound are seen more often. The greatest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errors is that most recent students search Chinese characters using computers and mobile phones, so it is presumed that there is a deep connection between the word appearing in the input window of the Sino-Korean word and the appearance order of the words . In future, if you compare the difference in misprints between Chinese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investigate the cause of spelling errors.

Key words : Chinese characters, cuozi(錯字), biezi(別字), Sino-Korean words, spelling errors

투 고 일 : 2017. 1. 10. / 심 사 일 : 2017. 1. 15.~ 2017. 2. 13. / 게재확정일 : 2017. 2. 20.